

국무총리 모두말씀

-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, 8.3(목) -

-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회의 안건은 모두 4건입니다. 그러나 그 성격으로 분류하자면,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.
 - 첫째는 이전 현안조정회의에서 한번 논의된 바 있는 사안을 소관 부처가 최종정리해 보고하는 안건입니다.
 - 제1호 안건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이 바로 그것입니다. 큰 토론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
 - 둘째는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, 국민 사이에 민감한 현안이 돼 있어서 정부 내부의 인식과 정보의 공유가 긴요한 사안입니다.
 - 제2호 안건 사드배치 문제, 제3호 안건 신고리 원전 5,6호기 문제가 그것입니다. 이 문제는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좀 더 많이 이해해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오늘 회의에 상정했습니다.
 - 셋째는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안건입니다.
 - 제4호 안건 2021학년도 수능개편시안이 그것입니다. 이 문제는 우리 교육이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을 중요시하는 시각과 교육현장의 안정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시각 등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.
 - 이 문제에 대해 참석자 여러분께서 평소의 생각이나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시면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오늘 토론결과를 수렴해 최종방침을 결정하고 발표할 것입니다.

- 참고로 제가 노파심으로 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문재인 정부 앞에는 수많은 개혁과제가 놓여있지만, 그 가운데서 특히 교육과 집값은 우리 국민이 가장 광범하게 관심을 가지고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안입니다.
 - 다른 개혁과제도 그렇지만, 특히 집값과 교육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입니다.
 -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 집값은 확실히 안정시켜야 합니다. 정책의 실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.
- 교육은 현장의 신뢰와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. 학생과 학부모와 대학이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, 매우 신중하게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 - 수능 절대평가의 도입시기와 도입의 범위가 오늘의 주된 토론 대상이 될 것입니다.
 - 절대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입시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
 - 그러나 절대평가를 급히 확대하면 학생과 학부모와 대학이 수용하고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교육현장에서 혼란과 불신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.
 - 절대평가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내신 확대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이 더 클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. 이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토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.